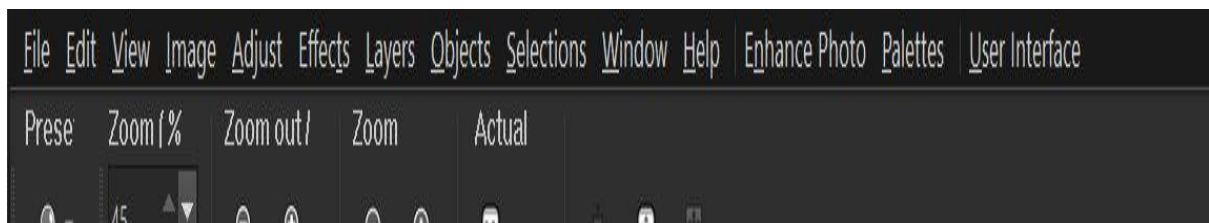


Picture organizing software re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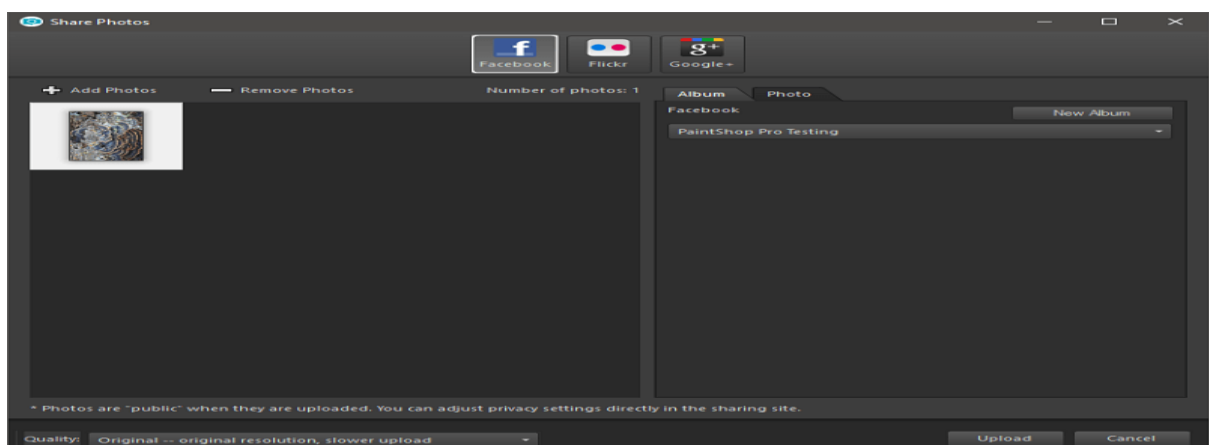
저는 많은 소프트웨어 중 PaintShop Pro에 대하여 리뷰하려고 한다.

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았는데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준다. 프로그램 안에 들어 갔을 때 생각보다 튜토리얼이 많지 않았다. 초보인 사람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의 일부 주요 기능들을 알려줄 필요도 있는데 말이다. 하지만 위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help에서 자기절로 필요한 기능들을 찾을 수 있다.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들보다도 사진작가나 포토샵 등 전문가들에게 훨씬 적합하다.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. 일단 이 소프트웨어의 주요기능들을 보겠다.



User Interface: 유저들을 위해 만든 기능이다. 글씨 크기부터 백그라운드 색깔까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. 밝은 그림을 편집할 때는 어두운 배경을, 어두운 그림을 편집할 때는 밝은 배경으로 할 수 있으니 눈이 편해진다.

Photo editing: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딱히 돋보이는 점이 없다. 무엇보다도 사진을 수정할 때 렉이 심하게 걸린다. 사진을 확대해 놓고 수정을 할 때는 아예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렉이 심해지니 최대한 사진을 축소해 놓고 수정해야 한다.



Manage: 사진을 정리함에 있어서 태그 기능을 쓸 수 있다. 태그에는 날짜, 키워드, 순위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사진을 찾을 때 아주 편리하다. 내가 태그를 다 한 다음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태그에 따라 파일들을 분류해주며 사진을 찾을 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.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. 바로 온라인 드라이브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에 저장을 할 수 없다.

Importing: Paintshop은 80여종의 타입의 파일을 지원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필요없이 직접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에서 직접 가져와서 열 수 있다.

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휴대폰 어플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좋게 포토샵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면 우리 같이 초보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써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. 바로 사진 정리이다. 휴대폰에 저장해 두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컴퓨터에 넣어서 보관을 할 것이고 찾을 때도 편리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.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굳이 비싸게 결제하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그냥 사진을 보관해두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울 것이다.